

# 결혼유형에 따른 배우자 선택 과정의 차이에 관한 연구

## - 취업 여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arriage Types and Courtship  
- focused on working women -

중앙대학교 인간생활환경학과  
장사 김진희  
교수 김양희

Dept. of Human Life and Environment, Chung Ang University

Lecturer : Kim, Jin Hee  
Prof. : Kim, Yang H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rocess of courtship form having date and marriage toward women who had job before marriage. The objects were 27.36 years old and had 9.59 months marital life at average. This study conducted structured questionnaires using the reflection of spouse selection procedure. By using collected data through questionnaires, it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cluster analysis and t-test. The type of marriage would be divided into the emotional marriage group and the implemental marriage group.

The emotional marriage group had longer dating time and more satisfaction of spouse selection than the implemental group. On value variable, the emotional marriage group had more subjective selection standard and more expectation social and emotional benefit than the latter group. On search variable, the emotional marriage group estimated the relation stability and satisfied the relation with spouse more than the implemental marriage group and expected the less possibility to meet new partner.

### I. 서 론

배우자 선택 과정은 결혼 생활을 위한 기초가 되고 결혼 생활의 적응과 행·불행을 좌우하는 중요

한 요인으로 결혼 생활이 배우자 선택 과정 동안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더라도 이 기간이 결혼 관계의 발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배우자 선택 과정은 결혼과 독립된 단계가 아니라 결혼의

안정성과 부부관계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다.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는 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고(Surra, 1990), 배우자 선택 과정 모델의 이론화 시도 및 실증적·경험적 검증이 지속되고 있다(Nye, 1978, 1980; Adams, 1979; Murstein, 1977, 1980, 1987; Burr, 1984).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배우자 선택 과정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1980년대 이후 결혼관(강호철, 1984; 김경숙, 1985; 홍준숙, 1987) 및 배우자 선정 조건이나 태도(김혜선·김영희, 1986, 1988; 백남희, 1986) 등을 실태 조사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들은 연령 cohort 집단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박지연, 1991; 이인수, 1994)와 배우자 선택 과정을 결혼 적응(김혜선, 1992), 결혼만족도(이경애, 1993), 이혼(김형선, 1997)과 연관시킨 연구들이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는 배우자 선택 조건과 같은 태도보다는 특정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한경혜, 1993; 채민정, 1996; 이경희, 1996)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이전의 연구 경향과 다른 점은 배우자 선택 기준과 같은 결혼에 대한 태도 연구보다는 배우자 선택 과정에 관련된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 선택 과정에 관련된 개인의 선호와 특성을 설명하여 결혼이라는 생의 사건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고, 배우자 선택 과정을 결혼 생활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된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 전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유형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가치-탐색-비교 변인으로 배우자 선택 과정을 구분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결혼 유형은 사랑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 선택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결혼은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우애적 가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정도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친밀감과 열정이 모두 높은 집단은 정서적 결혼 집단

으로, 친밀감과 열정이 모두 낮은 집단은 도구적 결혼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배우자 선택 과정은 교환이론의 개념을 적용하여 파트너가 주는 보상을 측정하는 가치 변인, 테이트 상대에 대한 비교 수준을 측정하는 탐색 변인, 대안의 비교수준을 측정하는 비교 변인으로 구성하여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배우자 선택 과정을 경험한 여성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라는 점이다. 미혼을 대상으로 한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는 이상적인 배우자 선택에 관한 기준들이 실현되었는가를 검증할 수 없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연구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배우자 선택 과정을 결혼 유형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혼의 중요한 동기로 인식되는 사랑이 배우자 선택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지배적인 결혼 유형으로 나타나는 연애혼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배우자 선택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환이론을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동질혼을 근거로 한 단순한 교환 형태만을 연구했으나 본 연구는 보상·비교수준·대안에 대한 비교 수준·종결에 대한 장벽으로 구성되는 교환이론의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배우자 선택 문화에 교환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교환 이론과 배우자 선택

#### 1)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의 교환 관계

배우자 선택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상품을 중심으로 결혼 시장에서 행해지며 개인이 지닌 물질적·비물질적 제반 자원에 의해 선택이 이루어진다.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는 목적은 효용을 최대화하거나 파트너의 특성간에 상관관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Becker, 1981). 사람들은 최대의 보상을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하며, 남녀가 각기 상이한 자원을 상호 교환하는 자원에 대한 보상과 대가는 객관적인 공평성과 균등성보다 개인이 절대적 보상수준이 높다고 인지할 때 가장 만족한다 (Murstein et al., 1977; Huston & Burgess, 1979; Cate et al., 1988; Surra, 1990).

교환이론은 개인들이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거래하는 자원을 강조하고(Edwards, 1969) 있는데 결혼에서는 계층·연령·신체적 매력·교육과 같은 특성을 거래하는 것으로 보았다. 배우자 선택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교환은 남자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여성의 신체적 매력과 교환하려 한다는 것이다(Sussman et al., 1983; Schoen et al., 1989). South(1991)는 미국의 미혼 남성과 여성의 배우자 선택 선호도를 조사·분석한 결과 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 확고한 직업, 높은 수입·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를 가진 남성을 가장 선호하였고, 남성은 비경제적인 요소들 즉, 자신보다 나아가 어리고 매력적인 여성과 결혼하기를 희망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교환이론을 지지하였다.

교환이론은 동질혼과 동질혼으로부터의 이탈 양쪽을 설명하는 데 흔히 사용되어 왔지만(Schoen & Wooldredge, 1989) 배우자 선택 이론은 유사한 기대를 지닌 파트너를 찾는 동질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Forste & Tanfer, 1996). 동질혼을 추구하는 이유는 첫째, 자신과 유사한 자원을 교환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둘째 가치 체계·생활 경험·사회적 배경이 유사한 사람에 대한 선호, 셋째, 동질혼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부모·동료로부터의 압력 (Lee, 1988; Schoen et al., 1988) 등이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 선택은 상호 호혜성 교환 법칙이 작용하여 동질적 결혼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동질혼은 개인적·사회적·심리적 보상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김양희, 1992).

데이트 관계의 지속성을 연구한 Sacher와 Fine (1996)은 남성과 여성의 혼선 수준은 관계 만족과 정적으로 관련되고, 대안의 질 점수와 부적으로 관계된다. 즉, 관계에 만족하고 대안의 질이 낮을수록 혼선 점수는 높아진다. Rusbult(1983)도 사람들이 보

상을 높게 인식하고, 관계에 드는 비용을 낮게 인식하며,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내면화된 기준이 충족될 때 그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파트너간의 빈번한 갈등은 관계에 드는 비용이므로 (Duffy & Rusbult, 1986) 상호간의 갈등 빈도는 관계만족 평가와 부적으로 연관된다(Kurdek, 1991).

## 2) 교환이론의 개념과 본 연구 변인의 관계

### (1) 보상

교환 이론가들은 지위, 자존감, 사랑, 돈 등의 세 부적인 보상은 교환마다 다르고, 교환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다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Eshleman, 1994). 낭만적 관계와 결혼 관계에서도 개인들은 돈을 제외한 신체적 매력·인성·가족 지위·기술·정서적 지지·조화·지능 등과 같은 거래 자원을 갖는다고 본다. 그리고 보상은 유머와 지적 능력 같은 고유의 특성과 성과 동료애를 포함하는 직접적인 보상행동 그리고 돈과 권력 같은 바람직한 자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Benokraitis, 1993).

본 연구에서 보상은 배우자 선택 과정의 가치 변인으로 측정된다. 배우자 선택 기준과 결혼에 대한 기대 변인들은 개인들이 파트너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이다. 배우자 선택 기준에서 성격·사랑·가치관의 일치로 구성되는 주관적 기준과 결혼에 대한 기대에서 행복·성·친구 및 가족 관계·정서적 안정과 같은 사회정서적 기준은 비물질적 보상이다. 그리고 배우자 선택 기준에서 학력 및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및 집안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기준과 결혼에 대한 기대에서 생활수준·경제적 안정·경제적 독립을 포함하는 경제적 기준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물질적 보상이다.

### (2) 비교 수준

비교수준(Comparison Level)은 개인이 주어진 관계의 보상과 대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현재 관계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 알고 있는 다른 관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근거로 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비교 수준은 개인이 현재 관계를 맷고 있는 상대방의 매

력 또는 만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만족은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한 개인이 받는 보상의 절대치 자체가 곧바로 만족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보상의 결과가 크면 클수록 만족도 높아지지만 만족은 보상과 대가의 결과와 개인의 비교수준을 함께 고려해서 생각해야 한다.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될 때 특정인의 비교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만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Thibaut & Kelly, 1959; Sabatelli, 1984; 한균자, 1983; 김득성, 1992).

본 연구에서 비교수준은 배우자 선택 과정의 팀색 변인을 구성하는 관계 안정으로 측정되며, 관계 안정은 회생과 만족, 관계 예정, 커플 정체감, 관계 우선 순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관계에 대한 회생에 만족하고,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리고 두 사람이 한 쌍임을 의식하는 정도가 높고 관계의 순위가 다른 관계 보다 높다면 그 관계는 비교 수준 이상이 되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 (3) 대안에 대한 비교 수준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Comparison Level for Alternative)은 현재 관계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대안적인 관계에서 얻어질 결과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판단 기준을 말한다. 현재 관계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개인의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 이하이면, 그 사람은 관계를 떠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개인이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비교수준 이하의 관계에 머무를지도 모른다(Thibaut & Kelly, 1959; Sabatelli, 1984; 한균자, 1983; 김득성, 1992).

본 연구에서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은 배우자 선택 과정의 비교 변인으로 측정된다. 파트너의 유용성은 현재 파트너 이외의 새로운 네이트 상대를 만날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고, 대안의 관찰은 현재 관계를 해체했을 때 새로운 대인이 있는가를 측정한 것이다. 그리고 종결에 대한 장벽은 대안의 매력에 빠지는 대신에 현재의 관계가 나에게 최선이라는 의식적·무의식적 느낌을 말한다(Adams, 1995).

## 2. 배우자 선택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

### 1) 가치 변인

배우자 선택 기준은 오랫동안 가족 연구자와 사회심리학자에게 관심 있는 주제이다.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적 매력과 외모를 중요한 것으로 들었고(Sprecher et al., 1994; Allgeier & Wiederman, 1991; Goodwin, 1990; Buss, 1989), 남성은 어린 상대를 선호하고, 여성은 나이든 상대를 선호(Rajecki et al., 1991; Bolig et al., 1984)하며 여성은 남성보다 수입 혹은 사회적 특성을 선호한다(Buss, 1989; Buss & Barnes, 1986; Townsend, 1989).

Brown(1994)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낭만성과 배우자 선택 기준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낭만적이라는 이전의 연구(Stones, 1992; Wehner & Kay, 1989; Simmons et al., 1986)들을 지지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남성보다 여성이 정서적 배경보다 실제적 배경에서 결혼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배우자 선택 기준에서 확실한 자원 획득 가능성을 가진 배우자를 좋아하고, 남성은 매력적인 배우자를 선호하였다.

경제가 나쁘고, 여성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 배우자에 대한 여성의 가치는 변한다(Benokraitis, 1993). 경제적인 제공자가 될 수 있는 배우자를 찾는 것은 물론이고 가사 노동과 자녀양육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Melton & Lindsey, 1987). 그러므로 이러한 가치를 지닌 남성은 그렇지 않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좀더 매력적이 될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인 자원은 경제적 독립성, 적당한 배우자에 대한 인식, 결혼 배우자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Englane & Farkas, 1986; Oppenheimer, 1988). 이전의 연구들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결혼을 연기하도록 한다고 주장(Farley & Bianchi, 1987; Preston & Richards, 1975) 했지만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결혼과 노동활동이 상호 배타적이 아님을 제시했다. 젊은 여성은 교육적 자원을 축적하고, 남성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려고 할 때 결혼을 연기할 수 있지만 학교를 마치고 취업한 독신 여성은 결혼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

다(Oppenheimer & Lew, 1993; Lichter et al., 1991)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가치를 재검토하고, 결혼에 대한 엄격한 관점을 취한다(Porat & Carr, 1987).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결혼에 관한 실험은 많은 사람에게 수용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신뢰·현신·영속성·충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결혼은 그 의미가 변화되었더라도 가족을 구성하는 사회제도로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 2) 탐색 변인

Lund(1985)는 관계 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해 관계 투자와 함께 현신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고, 종단적 연구에서 현신과 투자는 안정된 관계와 불안정한 관계를 구별해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Hill et al.(1976)은 처음 만났을 때 결혼 가능성의 인지가 지속되는 관계와 해체된 관계를 구별해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후속 연구에서 계속 만나고 있는 쌍은 해체된 관계보다 결혼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함을 발견하였다. Llyd et al.(1984)의 연구에서도 두 사람의 데이트 기간을 통제하면 관계의 안정성과 결혼 기회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신이 혼전 관계의 안정성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해 준다. 일반적으로 개인 현신은 관계 안정성을 성공적으로 예측한다. 현신은 관계가 장기간 지속될 것인가에 관한 파트너의 신념 혹은 관계 안정의 개념이다(Surra, 1997). 그러나 현신의 세부적인 정의는 관계의 미래에 대한 파트너의 생각과 관계가 지속되는 동기(Johnson, 1991), 관계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의지(Rusbult, 1983, 1991), 관계 지속에 대한 판단, 대안적인 관계의 어려움, 관계가 끝났을 때 예측되는 상실(Lund, 1985), 관계에 대한 현신과 관계를 떠나는 것에 대한 구속(Stanly & Markman, 1992), 한 사람이 상대에 대한 서약(Lydon & Zanna, 1990) 등으로 다양하다. 쌍의 의존성과 관계 안정의 중요한 지표로 가정되는 일 반적인 현신과 구별되는 결혼 현신은 특정한 대상과 결혼하고 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에 대한 파트너의 생각을 말한다(Surra, 1997).

Rusbult(1983)의 연구는 관계 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해 투자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안정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가 증가했음을 보고하였다. Hendrick et al.(1988)은 안정된 관계와 불안정한 관계를 구별하기 위해 데이트 쌍의 투자 정도를 비교하여 계속되는 관계에서 파트너들은 관계가 종결된 사람들보다 투자를 높고 보고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Femlee et al.(1990)도 안정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를 종결 한 사람들보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을 밝혔다.

## 3) 비교 변인

Rusbult(1983)는 혼전 관계 안정성에서 하나의 요소로서 대안의 비교수준을 검증했다. 대안의 비교수준은 다른 가능한 데이트 파트너가 있는가와 가능한 대안들이 현재의 파트너와 어떻게 비교되는가를 묻는 두 가지 항목에 의해 측정되었고, 데이트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유지된 사람들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안의 비교수준이 증가했다. Berg와 McQuinn(1986)는 해체를 예측하기 위해 현재의 관계가 다른 관계와 어떻게 비교되는가를 평가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가 깨진 쌍은 함께 한 쌍보다 연구의 시작에서 대안의 비교수준이 높았으며 해체된 관계는 함께 한 쌍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안의 비교수준이 증가하였다. Femlee et al.(1990)도 데이트 관계의 종결 지표로서 다른 변수들과 함께 대안의 비교수준을 검증한 결과 대안의 비교수준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더라도 안정성을 예측해주는 변인임을 검증하였다.

부모와 친구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자들은 사회적 조직망으로부터의 지지 혹은 승인은 관계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반대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가설화 하고 있다(Femlee, 1992). 또 Park et al(1983)은 자신과 파트너의 조직망으로부터의 지지는 사랑, 현신, 파트너와 보내는 시간 등과 정적으로 연관된다고 하였다. Johnson & Milardo(1984)는 1년 이내에 관계가 깨진 쌍은 관계가 유지되는 쌍보다 초기에 방해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Femlee et

al(1990)은 사회 조직망으로부터 받은 지지의 양은 혼전 관계의 지속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Hill et al(1986)의 연구도 부모의 압력은 데이트 관계를 종결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첫 번째 결혼 3년 미만으로서 자녀가 없으며, 결혼 전에 취업했던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결혼으로 한정한 이유는 재혼의 배우자 선택 과정은 초혼의 결혼 경험으로 인하여 배우자 선택 과정 중의 상호작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경험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려는 의도이다. 결혼 3년 이내의 무자녀로 정한 것은 배우자 선택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척도들이 데이트 과정과 구혼 기간으로 돌아가 회상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혼 지속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선택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회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연령, 학력, 수입, 직업으로 분류해 보면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현재 평균 연령은 27.3세( $SD=2.73$ )이고, 26세 이하(39.5%), 27-28세(33.3%), 29세 이상(27.1%) 순으로 26세 이하가 가장 많이 표집 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결혼 한지 3년 이내이기 때문에 평균 결혼 연령을 중심으로 많은 사례수가 표집 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은 대졸(56.2%), 고졸(43.8%)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연구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높았다. 1996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20-29세 여성의 평균 교육기간은 12.67년이고, 대졸이상의 여성 비율은 12.8%이다. 본 연구의 표집이 모집단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것은 표집 대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자의 결혼 전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49.3%이고, 100~150만원 28.6%, 150만원 이

상이 22.1% 였다. 1996년 여성의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1996 여성 통계 연보, 1997) 의하면 월 평균 임금총액은 20-24세 799,281원, 25-29세 1,067,644 원으로 계산되어 있어 본 연구의 표집은 같은 연령 집단과 비교했을 때 수입은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계층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가계 수입을 조사한 결과 100-150만원이 3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250만원(22.0%), 150-200만원(21.7%) 순위이다.

직업은 사무직(38.2%), 전문직(36.2%), 관리직(7.0%)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현재 직업에서는 무직인 사례가 54.7%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18.8%), 사무직(12.8%) 순위였다. 전문직과 사무직인 사례가 많은 것은 연구대상의 교육 수준과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단순기술직이나 생산직보다는 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자기 보고의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각 측정도구들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것들이며, 일부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관련된 연구를 통해 추출한 변수들로 문항을 제작하였다. 모든 측정도구들은 예비조사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였고, 최종 질문지 문항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 1) 결혼 유형 측정도구

조사대상자의 결혼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군집화 변수는 Stenberg(1990)가 제작한 The Triangle Theory Scale 가운데 친밀감과 열정을 측정하는 30개 문항을 권석만(1997)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응답 범위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극히 그렇다' 7까지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했다. 예비조사에서 요인 분석 결과 Stenberg의 척도에서는 열정의 요인에 있는 7번 문항(어떤 사람보다 파트너와 함께 있고 싶다)이 친밀감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신뢰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7번 문항을 포함시켜 친밀감

&lt;표 1&gt;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집 단	n(%)	
연 령	26세 미만	121(39.5)	
	27세 - 28세	102(33.3)	
	29세 이상	83(27.1)	
	M = 27.33 SD = 2.73		
학 력	고 졸 대 졸	134(43.8) 172(56.2)	
결혼지속연수	6개월 이하	155(52.5)	
	7개월 - 12개월	66(22.4)	
	13개월 - 24개월	52(17.6)	
	25개월 - 36개월	22( 7.5)	
	9.59(3.20)		
소 득	결혼전 개 인 소 득	100만원 미만	145(49.3)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84(28.6)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7(12.6)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7( 2.4)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0( 3.4)
		300만원 이상	11( 3.7)
	결혼후 가 계 수 입	100만원 미만	17( 5.8)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05(35.6)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64(21.7)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65(22.0)
직 업	결혼 전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3( 7.8)
		300만원 이상	21( 7.1)
		전 문 직	109(36.2)
		관 리 직	21( 7.0)
		사 무 직	115(38.2)
		생 산 직	7( 2.3)
		기 술 직	8( 2.7)
		영업 직	10( 3.3)
		자 영업	7( 2.3)
	결혼 후	서비스직	12( 4.0)
		기 타	12( 4.0)
		전 문 직	56(18.8)
		관 리 직	7( 2.3)
		사 무 직	38(12.8)
		생 산 직	1( 3)
		기 술 직	1( 3)
		영업 직	5( 1.7)
		자 영업	5( 1.7)
		서비스직	11( 3.7)
		전업주부	6( 2.0)
		기 타	163(54.7) 5( 1.7)

〈표 2〉 측정도구의 구성

측정도구	변수명	하위 변인	설문지 문항	Cornbach- $\alpha$
결혼 유형 구분 변인	사 랑	친밀감 열 정	6-1~6-15 6-16~6-29	.974 .947
가치 변인	배우자 선택 기준	주관적 기준	8-1, 8-4, 8-5	.748
		사회적 기준	8-2, 8-3	.719
	결혼에 대한 기대	사회정서적 기대 경제적 기대	2-4~2-8 2-1~2-3	.846 .872
탐색 변인	관계 안정성	관계의 중요성 커플 정체감 관계에 대한 투자 관계 지속성	5-25~5-30 5-19~5-24 5-31~5-36 5-13~5-18	.797 .742 .819 .838
비교 변인	대안 탐색	새 파트너에 대한 접근성 대안의 관찰	5- 1~5 -6 5-37~5-41	.771 .736
	종결에 대한 장벽	사회적 압력	5- 7~5-12	.783

요인을 16개, 열정 요인을 14개로 분석할 경우 설명력이 65.26%인 반면 Stenberg의 요인 구조를 유지하고 7번 문항을 제외하여 열정 요인을 14개로 구성할 경우 설명력이 68.40%로 높아졌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열정의 7번 문항을 제외하고 총 29개 문항으로 사랑유형을 측정하였다.

한국어에는 영어가 의미하는 「love」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없고, 한국인에게 있어 사랑은 「love」의 의미보다는 「정서적 유대」에 가깝다 (Brown, 1994). Stenberg가 사랑의 구성요소로 제시한 친밀감은 한국적 표현으로는 「정」이라고 할 수 있다 (Spencer, 1988).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늘 파트너와 함께 있고 싶다'는 문항이 「love」에서는 열정에 속하지만 한국적 정서에서는 수년간 지속된 부부관계에서 기대되는 정의 의미로서 친밀감 요인으로 분류된 것으로 생각된다.

예비조사 결과에서 제외된 한 문항을 빼고 총 29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 구성은 Stenberg의 척도와 일치하였다. 요인 1은 친밀감으로 설명력은 58.8%로 높은 반면, 열정인 요인 2의 설명력은 9.7%에 그쳤다.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 사랑 유형이 열정보다 친밀감에 의해 설명되는 것은 데이트 초기의 열정이 친밀감으로 대치되

면서 구애과정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2) 가치 변인 측정 도구

배우자 선택 기준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조건으로 고려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1점에서 '매우 고려했음' 7까지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했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6개의 문항 중 '외모' 문항이 요인의 설명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최종 5 문항으로 구성된 배우자 선택기준 척도를 주성분 분석한 결과, 2개의 요인이 나타났다. 요인1은 주관적 기준으로 배우자의 성격·애정·가치관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체 변량의 43.6%를 설명하고, 요인 2는 사회적 기준으로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문항들이며 28.0%를 설명했다.

결혼에 대한 기대는 Richard A. Bulcroft & Kris A. Bulcroft(1993)가 결혼으로 얻어진다고 알고 있는 이득(Perceived Benefits of Marriage)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8개의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까지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했다. 예비조사에서 8개의 문항 모두 척도 구성을 위한 요인분석의 기준치를 넘었으며, 설명력은 71.04%, 신뢰도는  $\alpha=.86$ 으로 측정도구로

서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어 본 조사에서도 8개의 문항 모두를 포함하여 질문지를 구성했다.

최종 8문항으로 구성된 결혼에 대한 기대 척도를 주성분 분석한 결과 2개의 요인이 나타났다. 요인1은 사회정서적 기대로 결혼하면 가족과 친구 관계가 원만해 지거나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는 결혼을 통해 경제적 보장과 안정을 기대하는 문항들이며 경제적 기대 요인이라고 하였다. 전체 변량에 설명력은 각 52.9%, 16.4%로 나타나 경제적인 측면보다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결혼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 3) 탐색 변인 측정 도구

관계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관계가 장기간 지속될 것인가에 관한 신념을 나타내는 헌신 척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헌신을 측정하는 문항은 Scott M. Stanley & Howard J. Markman(1992)의 The Commitment Inventory 60개 문항 가운데 관계에 대한 비교수준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문항들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강제 헌신 항목(constraint commitment Items)에서 6문항과 개인 헌신 항목(dedication commitment items)에서 30문항을 뽑아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까지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했다.

예비조사 분석 결과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신뢰도가  $\alpha=70$ 을 넘지 않은 구조적 투자와 헌신 변화 두 개 요인에 속하는 12문항은 본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관계 안정성 척도의 문항 24개를 요인분석 한 결과 전체 변량의 38.99%를 설명하는 관계에 대한 투자, 관계 지속성(설명력 7.83%), 커플 정체감(설명력 6.60%), 관계의 중요성(설명력 4.47%)의 4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관계 안정성에서 관계에 대한 투자 요인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은 다른 요인에 비해 관계의 비교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4) 비교 변인 측정도구

비교 변인 측정도구는 대안의 비교수준과 종결에 대한 장벽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배우자

선택 과정의 비교 변인은 새로운 대안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현재 관계가 결혼에 이르는 것으로 Murstein (1974)이 제시 한 ‘conveyor belt’, Lewis (1972)의 ‘쌓 전형화’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Scott M. Stanley & Howard J. Markman(1992)의 The Commitment Inventory 가운데 강제 헌신 항목(constraint commitment Items)에서 파트너의 유용성과 사회적 압력에 관한 12문항을 그리고 개인 헌신 항목(dedication commitment items)에서는 대안의 탐색 5개의 문항을 뽑아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까지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했다.

총 17개 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요인 1은 설명력이 34.3%였고, 현재 파트너 이외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변량의 17.92%를 설명하는 요인 2는 현 관계 이외의 다른 가능성을 비교하는 대안의 관찰이고, 요인 3은 종결에 대한 장애를 알아보는 문항들로 구성된 사회적 압력으로서 설명력은 17.32%이다.

### 3. 자료 수집 절차

측정 도구의 문항을 작성한 후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1998년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요인 구조를 검증하여 요인의 설명력을 감소시키거나 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제거하고, 표현이 어색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들은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서울과 경기도(과천, 분당, 수원, 안성, 천안, 이천, 강화)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33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70부는 반송 우표와 봉투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수거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것으로 분류된 16부의 설문지와 결혼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한 6부, 결혼 전에 직업이 없는 사례 7부를 제외하여

총 32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랑 유형으로 집단 구분을 하기 위한 군집분석 실시 결과 군집화에서 누락된 15사례가 발견되어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분석은 306부의 사례로 수행되었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Reliability Analysis)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자는 제곱한 유클리디안 거리(Squared 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한 계층적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방법에 의하여 군집화 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배우자 선택 과정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정서적 결혼 집단과 도구적 결혼 추구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연구 대상자의 결혼 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 배우자 선택 과정은 몇 가지 공통된 발달적 형태가 나타나더라도 개인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통해 결혼에 이르게 된다는 과정 모델(Cate

& Lloyd, 1992)의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 선택 과정은 관계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 것으로 보아 연구 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배우자 선택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랑이 결혼의 중요한 동기로 인식된다는 점과 사랑이 없는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측면에서 사랑의 정도에 따라 결혼 유형을 구분하였다.

결혼 유형은 친밀감과 열정으로 구성되는 사랑의 정도에 의해 나누었다. 사랑 유형 29개 문항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306개의 사례 중에서 군집1에 186명, 군집2에 120명이 분류되었다. 요인 점수를 종속변수로 군집을 독립변수로 군집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군집 1의 전체 사랑 점수는 5.34으로 7점 척도 상에서 '상당히 그렇다' (4점) 이상인 반면 군집 2는 3.16으로 '그렇다'로 나타나 두 집단에서 사랑의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t=25.6$ ,  $p<.001$ ). 사랑 점수가 높은 군집 1은 애정을 바탕으로 배우자 선택 과정을 경험하고, 애정의 동기에 의해 결혼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서적 결혼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사랑 점수가 낮은 군집 2는 파트너에 대한 애정적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배우자 선택 과정을 경험하고, 애정보다는 다른 조건들에 의해 결혼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구적 결혼으로 분류하였다.

정서적 결혼 집단과 도구적 결혼 집단의 사랑 유형은 친밀감과 열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낭만적 사랑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주변에서 흔하게 보게

<표 3> 사랑 정도에 따른 군집간의 차이 검증

요인	군집 분석		t
	정서적 결혼(n=186)	도구적 결혼(n=120)	
	M (SD)	M (SD)	
친밀감	5.72(.82)	3.30(.97)	23.30***
열정	4.91(.89)	2.99(.80)	19.07***
전체	5.34(.73)	3.16(.72)	25.66***
Paired t-test	12.21***	3.14**	

\*\* $p<.01$    \*\*\* $p<.001$

되는 데이트는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다는 Sternberg (1986)의 지적과 같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배우자 선택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서적 결혼 집단과 도구적 결혼 집단에서 친밀감과 열정의 구성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

정서적 결혼 집단에서는 친밀감 5.72 열정 4.91로 두 요인 모두 7점 척도 상에서 '상당히 그렇다' 이상이다. 그러나 도구적 결혼 집단의 친밀감은 3.30, 열정은 2.99로 '그렇다'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서적 결혼 집단의 친밀감과 열정의 점수 차이 ( $t=12.21$ ,  $P<.001$ )는 도구적 결혼 집단의 친밀감과 열정 점수의 차이 ( $t=3.44$ ,  $p<.01$ )보다 크다. 이러한 결과는 도구적 결혼 집단은 정서적 결혼 집단보다 친밀감과 열정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도구적 결혼 집단은 충분하게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 초기의 열정이 결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정서적 결혼 집단은 초기의 열정이 친밀감으로 대치되는 과정을 통해 결혼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 유형을 구분한 결과, 정서적 결혼 집단과 도구적 결혼 집단은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 분명하게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랑의 정도는 두 사람의 친밀감과 열정의 정도만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 선택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쌍의 상태를 일차적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서적 결혼 집단과 도구적 결혼 집단이 유사한 과정을 경험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두 집단이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 경험하는 보상 및 비교 수준과 대안의 비교수준의 평가 정도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 2. 결혼 유형에 따른 배우자 선택 과정의 차이

### 1) 가치 과정

정서적 결혼 집단 ( $t=16.19$ ,  $p<.001$ )과 도구적 결혼 집단 ( $t=9.34$ ,  $p<.001$ )은 모두 배우자 선택 기준에서 사회적 기준보다 주관적 기준을 고려한 정도가 높다(표 4). 주관적 기준의 모든 항목들은 두 집단간

에 차이가 있고, 정서적 결혼 집단이 도구적 결혼 집단보다 주관적 기준을 높게 고려 ( $t=3.63$ ,  $p<.001$ )하고 있다. 두 집단 모두 파트너를 배우자로 평가할 때 성격을 가장 많이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사랑, 가치관 순위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배우자 선택 기준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변인이 성격이라는 결과들과 일치한다.

두 집단간에 차이가 가장 큰 주관적 요인의 평가 항목은 가치관 ( $t=3.24$ ,  $p<.001$ )이다. 도구적 결혼 집단은 정서적 결혼 집단보다 파트너와 자신의 가치관이 일치하는가에 관심이 낮다. 이것은 정서적 결혼 집단이 파트너에게 애정을 기반으로 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감에 대한 욕구가 높아 가치관의 일치를 추구하는 반면 도구적 결혼 집단은 결혼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파트너와의 가치관 일치보다는 결혼에 대한 합의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기준은 주관적 기준보다 점수가 낮고,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경제력 및 집안을 고려하는 정도는 도구적 결혼 집단이 높은 경향이 있다. 두 집단 모두에서 주관적 기준보다 사회적 기준을 고려하는 정도가 높은 것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연령·계층·종교·인종·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적 속성을 먼저 고려한 후에 주관적인 요인을 고려하기 때문에 해석된다(Kerckhoff, 1974; Surra, 1990).

도구적 결혼 집단이 정서적 결혼 집단보다 배우자 선택 기준에서 경제력 및 집안을 고려하는 정도가 높은 경향은 도구적 결혼 집단이 결혼을 수단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제시 해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도구적 결혼 집단은 누구와 결혼 하는가보다 결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배우자의 사회적 기준이 충족된다면 주관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결혼할 가능성이 정서적 결혼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결혼에 대한 기대 변인에서 정서적 결혼 집단과 도구적 결혼 집단은 각 문항의 평균값이 4점 이상으로 결혼에 대한 기대는 비교적 높다. 사회정서적 기대에서는 두 집단 모두 정서적 안정과 행복에 대

&lt;표 4&gt; 두 집단의 배우자 선택의 가치 과정 비교

M(SD)

변인	문 항	결혼유형	정서적 결혼	도구적 결혼	t
배우자 선택기준	주관적기준	성 격	6.53(.73)	6.27(1.14)	2.80**
		사 랑	6.43(.83)	6.15(.94)	2.70**
		가치관 일치	6.04(1.06)	5.62(1.13)	3.24***
		전 체	6.33(.70)	6.00(.87)	3.63***
	사회적기준	학력·사회적지위	5.01(1.34)	4.97(1.31)	.229
		경제력·집안	4.42(1.64)	4.68(1.37)	-1.46
		전 체	4.71(1.32)	4.82(1.13)	-.764
	Paired t - test		16.19***	9.34***	
결혼에 대한기대	사회정서적기대	행 복	6.02(1.07)	5.48(1.19)	4.11***
		성	5.56(1.27)	5.13(1.26)	2.91**
		친구관계 원만	4.84(1.29)	4.70(1.30)	.84
		부모와 관계원만	5.41(1.40)	5.19(1.36)	1.37
		정서적 안정	6.03(1.09)	5.65(1.20)	2.84**
		전 체	5.57 (.92)	5.22(1.08)	3.09**
	경제적 기대	생활수준 향상	4.71(1.29)	4.73(1.12)	-.165
		경제적 안정	4.80(1.38)	4.78(1.27)	-.079
		경제적 독립	4.59(1.45)	4.71(1.38)	-.703
		전 체	4.69(1.20)	4.74(1.14)	-.307
	Paired t - test		10.72***	5.25***	

\*p&lt;.05    \*\*p&lt;.01    \*\*\*p&lt;.001

한 기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순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기대에서는 경제적 안정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고,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적 독립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회정서적 기대는 정서적 결혼 집단과 도구적 결혼 집단간에 차이( $t=3.09$ ,  $p<.01$ )가 있었으나 경제적 기대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사회정서적 기대에서는 친구관계와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해 질 것이라는 문항을 제외한 다른 문항들에서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다. 정서적 결혼 집단은 도구적 결혼 집단 보다 사회정서적 기대와 경제적 기대의 점수 차가 크다. 따라서 정서적 결혼 집단은 도구적 결혼 집단 보다 사회정서적 안정에 대한 보상을 경제적 보상 보다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결혼 집단이 도구적 결혼 집단보다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배우자 선택 과정을 경험하고, 애정을 기반으로 심리적 만족을 줄 수 있는 부부관계를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로

보아진다.

결혼에 대한 기대는 교환 이론 관점에서 배우자가 줄 수 있는 결혼의 보상이다. 정서적 결혼 집단과 도구적 결혼 집단 모두 물질적 자원보다는 심리적 자원의 보상을 높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구적 결혼 집단에서 사회정서적 기대감과 경제적 기대감의 차이는 정서적 결혼 집단에서보다 적다 ( $t=5.25$ ,  $p<.001$ ). 즉, 도구적 결혼 집단은 결혼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독립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정서적 집단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정서적 결혼 집단은 배우자 선택 기준에서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기대에서도 사회정서적 이득을 높게 기대한 것으로 생각된다.

## 2) 탐색 과정

탐색 과정은 비교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관계의 안정성에 의해 측정되며, 현재 관계의 안정성이 높

다는 것은 관계가 비교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현재 관계의 비교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관계 안정성은 정서적 결혼 집단과 도구적 결혼 집단간에 차이( $t=6.49$ ,  $p<.001$ )가 있어(표 5) 정서적 결혼 집단이 도구적 결혼 집단보다 관계 안정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서적 결혼 집단이 현재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다.

정서적 결혼 집단이 파트너와의 관계를 다른 관계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두 사람이 한 쌍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투자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으며, 파트너와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정도도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결혼 집단이 배우자 선택의 주관적 기준과 결혼에 대한 사회정서적 기대를 높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즉, 현재의 파트너가 주는 보상이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킨 것이다.

관계 안정성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결혼 집단과 도구적 결혼 집단의 상호작용 내용과 파트너에 대한 정서적 몰입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결혼 집단은 도구적 결혼 집단보다 현재의 관계가 비교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대안이 출현하더라도 현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구적 결혼 집단은 파트너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상태에서 배우자 선택 과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 3) 비교 과정

정서적 결혼 집단과 도구적 결혼 집단에서 사회적 압력은 유의한 차이( $t=5.04$ ,  $p<.001$ )가 있어(표 6) 정서적 결혼 집단이 도구적 결혼 집단보다 종결에 대한 장벽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압력은 관계 종결에 따른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현재 관계를 해체할 때 주변으로부터 받게 되는 비난과 걱정을 비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 주변으로부터 받는 결혼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도구적 결혼 집단은 파트너에 대한 애정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관계가 종결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 관계 해체에 따른 비용을 낮게 인식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 탐색을 측정한 결과, 정서적 결혼 집단과 도

〈표 5〉 두 집단의 배우자 선택의 탐색 과정 비교

M(SD)

변인	요인	결혼유형	정서적 결혼	도구적 결혼	t
관계 안정성	관계에 대한 투자	5.14(1.04)	4.51(1.02)	5.21***	
	관계 지속성	5.89(1.00)	5.19(1.17)	5.48***	
	커플 정체감	5.68(.92)	5.04(.92)	5.87***	
	관계의 중요성	5.39(1.02)	4.74(1.04)	5.38***	
	전체	5.53(.83)	4.86(.90)	6.49***	

\*\*\* $p<.001$ 

〈표 6〉 두 집단의 배우자 선택의 비교 과정 비교

M(SD)

변인	요인	결혼유형	정서적 결혼	도구적 결혼	t
종결에 대한 장벽	사회적 압력	5.15(1.12)	4.50(1.03)	5.04***	
	새 파트너에 대한 접근성	3.99(1.20)	3.76(1.16)	1.39	
	대안의 관찰	4.89(1.25)	4.29(1.21)	4.10***	
대안 탐색	전체	4.44(1.03)	4.02(.96)	3.30***	

\*\*\* $p<.001$ 

대안 탐색 변인은 점수가 낮을수록 대안을 탐색하는 정도가 높음.

구적 결혼 집단 모두 대안의 관찰보다는 새 파트너에 대한 접근성 점수가 낮아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안에 대한 비교 수준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가능성은 있더라도 대안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현재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적 결혼 집단이 전체적인 대안 탐색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반면 도구적 결혼 집단이 대안의 비교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t=3.30$ ,  $p<.001$ ). 대안의 비교 수준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새 파트너에 대한 접근성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반면 대안의 관찰에서는 유의한 차이( $t=4.10$ ,  $p<.001$ )가 있어 도구적 결혼 집단이 대안을 관찰하는 정도가 높다. 두 집단간에 새 파트너에 대한 접근성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대안의 관찰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배우자 선택에서 대안의 비교 수준이 평가되는 방식을 예측하게 해주는 결과이다. 즉, 대안에 대한 비교 수준의 평가는 새로운 파트너를 현재 파트너와 비교하는 현실적인 과정이 아니라 현재의 파트너가 최선이라는 전제하에 대안을 평가하는 것이다.

새 파트너에 대한 접근성과 대안의 관찰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적 결혼 집단의 차이가 도구적 결혼 집단의 점수 차이보다 크다. 즉, 두 집단이 모두 대안의 관찰보다 새 파트너에 대한 접근성 점수가 낮지만 도구적 결혼 집단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게 될 때 대안을 고려하는 정도가 정서적 결혼 집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V. 결론 및 제언

정서적 결혼 집단과 도구적 결혼 집단은 본 연구에서 정한 배우자 선택의 가치-탐색-비교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치 과정에서 정서적 결혼 집단이 도구적 결혼 집단보다 배우자 선택 기준에서 주관적 기준을 높게 고려하고, 결혼을 통해 사회정서적 이득을 기대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구적 결혼 집단은 사회적 기준과 경제적 기대를 고려하는 정도가 정서적 결

혼 집단보다는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파트너에 대한 보상을 측정하기 위한 가치 과정에서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탐색 과정에서는 정서적 결혼 집단이 도구적 결혼 집단보다 관계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파트너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았다. 관계 안정성은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비교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서적 결혼 집단이 현재의 관계를 비교 수준 이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도구적 결혼 집단이 파트너에 대한 정서적 몰입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로 볼 수 있으며, 파트너가 누구인가보다 결혼 자체에 집중하는 배우자 선택 과정을 경험하는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비교 과정에서는 정서적 결혼 집단이 도구적 결혼 집단보다 사회적 압력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새로운 파트너와 만날 가능성과 대안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하고 있었다. 비교 과정은 종결에 대한 압력과 대안에 대한 비교 수준을 측정한 변인이기 때문에 정서적 결혼 집단이 종결에 대한 압력이 높고, 구체적으로 현재 관계와 대안을 비교하지 않고 결혼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구적 결혼 집단은 종결에 대한 장벽이 정서적 결혼 집단보다 낮아 관계 해체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으로 이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관계와 대안을 충분히 비교하여 현재 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을 경험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두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 볼 때 정서적 결혼 집단과 도구적 결혼 집단은 다른 경로를 통해 결혼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결혼 집단은 개인이 선호하는 결혼을 만들어 가는 집단인 반면 도구적 결혼 집단은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결혼을 따라간 것으로 생각된다. 교환 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서적 결혼 집단은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와 애정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인 탐색과 비교 과정을 통해 결혼하지만 도구적 결혼 집단은 파트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현재 관계에 대한 만족과 대안을 비교하는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결혼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 선택의 가치-탐색-비교 과정은 폐쇄적 단계가 아니라 개방된 개념으로서 시간 경과에 따라 과정의 영향력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전 단계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적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환이론의 개념을 적용하여 제시한 배우자 선택의 가치-탐색-비교 모형은 어느 단일한 요인이 배우자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보상과 비용을 고려하여 충분히 탐색한 후 결혼을 결정한다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는 개인들에게 다른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며, 배우자 선택 과정에 참여하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 따라 배우자 선택 과정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현재 결혼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로부터 결혼까지의 과정을 회상기법으로 서술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결혼에 이른 데이트 과정과 결혼에 이르기 전에 종결된 관계의 차이점을 밝혀 내지 못한다. 다음으로 여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똑 같은 배우자 선택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가정되는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의미로 배우자 선택 과정을 평가하고 있는지도 밝혀내지 못한 제한점이다. 파트너가 배우자 선택 과정에 참여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 쪽 개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상호작용 요소가 배우자 선택 과정에 개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후속 연구에서는 두 사람을 함께 연구하여 배우자 선택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1) 권석만, 인간관계 심리학, 학지사, 1997.
- 2) 김득성,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의 관계: 사회교환 이론적 접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3) 김양희, 가족 관계학 -개정판-, 서울: 수학사, 1996.
- 4) 김양희 · 이형설, 결혼과 가족,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7.
- 5) 김형선, 배우자 선택과정과 결혼의 질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6) 김혜선, 배우자 선택과정과 결혼 적응도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7) 박지연, 우리 나라 결혼구조의 변화와 간이결혼 생명표를 이용한 혼인역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8) 이경애, 도시부부의 배우자 선택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9) 이인수, 한국 여성의 결혼전이 시기 연구: 생애 과정관점으로 본 결혼 전이 시기결정요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10) 채민정, 여성의 결혼경험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결혼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11) 한경혜, 사회적 시간과 한국 남성의 결혼연령의 역사적 변화: 생애과정 관점과 구술생활사 방법의 연계, 한국사회학 27, 1993, 295-217.
- 12) 한국 여성개발원, 1996 여성 통계연보, 1997.
- 13) Adams, B. N., Mate S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A Theoretical Summarization, *Contemporary Families,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 1979, 259-267.
- 14) Adams, B. N.,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Harcourt Brace & Company, 1995.
- 15) Benokraitis, N. V., Marriage and Families: Changes, Choices, and Constraints, Prentice-Hall, A Sim & Schuster Company, Englewood Cliffs, New York Jersey, 1993.
- 16) Brown, R. A., Romantic Love and the Spouse Selection Criteria of Male and Female Korea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4, 1994, 183-190.
- 17) Bulcroft, R. A., & Bulcroft, K. A., Race Differences in Attitudinal and Motivational Factors in the Decision to Marry, *Journal of Marriage and*

- the Family*, 55, 1993, 338-355.
- 18) Cate, R. M., Jeffrey, E. L., Angera, J., & Draper, K. K. . Sexual Intercourse and Relationship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42, 1993, 158-164.
  - 19) Cate, R. M., & Lloyd, S. A., Courtship, Sage Publications, 1992.
  - 20) Felmlee, D., The Influence of Parents and Friends on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Romantic Relationship: A Three-Wave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1992, 888-900.
  - 21) Forste, R., Tanfer, K., Sexual Exclusivity among Dating, Cohabiting, and Marrie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1996, 33-47.
  - 22) Kurdkok, L. A., Areas of Conflict for Gay, Lesbian, and Heterosexual Couples: What Couples Argue About Influences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995, 923-934.
  - 23) Lee, W., & Joan, J., Predicting Marital Success After Five Years: Assessing the Predictive Validity of FOCU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2), 1995, 141-154.
  - 24) Murstein, B. I., A Clarification and Extension of the SVR Theory of Dyadic pairing. *Journal of Marriage the Family*, 49, 1987, 929-933.
  - 25) Nye, F. I., Choice, Exchange, and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2, The Free Press, 1979, 1-41.
  - 26) Sabatelli, R. M., Measurement Issues in Marital Research: A Review and Critique of Contemporary Survey Instrument. *Journal of Marriage the Family*, 50, 1988, 891-915.
  - 27) Sacher, J. A., & Fine, M. A., Predicting Relationship Status and Satisfaction After Six Months Among Dating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1996, 21-32.
  - 28) Schoen, R., & Wooldredge, J., Marriage Choices in North Carolina and Virginia, 1969-71 and 1979-81. *Journal of Marriage the Family*, 51, 1989, 465-481.
  - 29) Schoen, R., & Weinich, R. M., Partner Choice in Marriages and Cohabitations. *Journal of Marriage the Family*, 55, 1993, 408-414.
  - 30) Sprecher, S., McLaughlin, D. K., Lichter, D. T., & Johnston, G. M., Some Women Marry Young: Transitions to First Marriage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Journal of Marriage the Family*, 55, 1993, 827-838.
  - 31) Stanley, S. M., & Markman, H. J. Assessing Commitment in 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1992, 595-608.
  - 32) Surra, C. A., Research and Theory on Mate Selection and Premarital Relationships in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the Family*, 52, 1990, 844-865.
  - 33) Surra, C. A., Research and Theory on Mate Selection and Premarital Relationships, Contemporary Families,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 1991, 54-75.
  - 34) Surra, C. A., Commitment Process in Accounts of the Development of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1997, 5-21.